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3 No.6 Serial No.138 2015.12. 15~33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5.33.6.15

부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 부자가족아버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An Ethnographic Study on a Welfare Facility for Single Father Families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ingle Fathers

김 기 화(Gihwa Kim)[1], 양 성 은(Sungeun Yang)[2*]

[1]Inha Child Development Center, Inha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nducted ethnography of a welfare facility for single-father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13 single-fathers living in a welfare facility. To explore life within the welfare facilit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ethnography was used with Spradley's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DR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irst theme was 'finding a way to overcome the crisis: the facility is a lifeline.' For fathers, choosing to enter a facility meant enduring a social stigma, but the decision was made with the hope of achieving successful parenting and economic independence amidst pressing difficulties. The category of living in the facility was represented by the theme 'build the family: preparing for independence through living in a welfare facility.' The fathers achieved psychological recovery through the decrease in parenting stress, improvements in their economic situation brought by living in a facility, and used this time as the foundation to gain independence and build a stable life. The event of departure from the facility was seen as 'incomplete preparation for departure' by the single fathers. The fathers with infants or younger children admitted to being anxious about leaving the facility, which involved the burden of raising the children on their own. There are practic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주제어(Key words) : 부자가족(single-father family), 부자가족복지시설(welfare facility for single-father family), 문화기술지(ethnography)

Ⅰ. 서론

우리사회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은 두드러진 가족변화의 특성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도 전체 12,958천 가구 중에 960천 가구로 7.4%였으나 2013년도에는 전체 18,206천 가구 중에 1,714천 가구로 9.4%를 차지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을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모자가족은 1995년도 788천 가구에서 2013년도 1,329천 가구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Inha-ro 100, Nam-gu, Incheon 22212, Korea, tel: +82-32-860-8117, E-mail: syang@inha.ac.kr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로 68%가 증가한 반면 부자가족의 경우 172천 가구에서 385천 가구로 123%가 증가하여 모자가족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과 서비스는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법 제정 당시 부자가족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은 2003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현재 시행중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공공부조 대상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 100~130%에 해당되는 저소득가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 1명당 월 7만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제공된다. 주거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일정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활안정과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한부모가족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은 혼자서 육아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법이 제정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자녀양육비 지원 차원의 획일적인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갈등, 가족관계 해체, 재구성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은 대체로 모자가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사회적 관심도 모자가족에게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부자가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나 지원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며,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동일한 한부모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관념은 바뀌지 않고 있다. 가족문화에서 자녀양육은 여성의 역할로 수용되어 가족해체 시 자녀양육을 여성이 맡는 사례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도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모자가족의 여건에 맞추어져 왔다. 이는 모자가족이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원의 부족과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고정된 성역할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부자가족 아버지는 자녀양육 역할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부자가족은 자녀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양육역할 수행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며, 자녀들에게는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해진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총 124개소로 생활시설 121개소와 이용시설 3개소이다. 유형별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수가 약 47.5%인 59개소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모자가족복지시설이 37.1%인 46개소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모자가족복지시설이 전체의 약 86.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자가족복지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다. 모자가족의 수가 부자가족의 수 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도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부자가족복지시설은 부족한 실태이다. 지금까지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 부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 재정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자가족복지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부자가족복지시설 인프라는 부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제도적 차원의 배제로 인해 부자가족은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최근 부자가족 수의 양적증가에 주목하게 되면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부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자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보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전체적인 맥락은 간과되었고,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과 같은 적응과정도 조명되지 못해왔다.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나 가족관계의 미시적 차원의 경험에 대한 탐색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환경적인 부분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삶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데, 체계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자가족이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미비하고, 공식·비공식 지지체계는 부자가족의 삶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공적지지체계인 부자가족복지시설의 생활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부족한 서비스와 지지체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끝까지 자녀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나가고 있는 내적역량은 무엇인지, 가족적응

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론적 담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인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를 살펴봄으로 가족복지 차원에서의 접근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부자가족의 적응과정에서 가족체계 및 사회체계에서 개입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에게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과 같은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킨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자가족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문화기술지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부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재한 실정에서 현상의 이면에 어떠한 문화가 작용하고 있는지 발견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중심 연구문제는 “부자가족 아버지의 적응 과정은 어떠하며, 가족복지시설에서의 경험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한부모가족은 결핍이라는 고정관념이 부가되면서 비정상 혹은 문제가족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혼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개인이 가족구조 해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D. Song, J. Sung, & J. Han, 2003). 부자가족은 사회적 편견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의 부자가족 아버지에 대해 부도덕한 사람이란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낙인을 형성하고 있다(E. Hwang, 2007). 즉, 배우자 부재에 대한 원인을 남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부자가족의 또 다른 측면의 어려움은 사회적 지지의 문제이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로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고 도움 받을 지지체계가 취약해진다(S. A. Anderson, 1998; G. C. Kitson & L. A. Morgan, 1990). 사회적 관계인 1차적 지원망인 부부관계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무너지면서 2차적 지원망인 친인척, 친구, 이웃 등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우에 따라 단절되면서 사회적 지지도 축소되기 때문이다(M. Ohem & D. Chun, 2006). 가족들은 이혼한 한부모에게 동반자적 역할을 하거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제공하며, 자녀를 돌보아 주거나 임시로 거처할 곳을 제공하다(K. Bursik, 1991). 하지만 이혼 후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어지게 된다(W. H. Berman & D. C. Turk, 1981).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M. Ohem & D. Chun, 2006).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들은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스스로 친척관계나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W. Beal & M. D. Edward, 1980). 실제로 부자가족 아버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역할로 보고되고 있어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양육부담을 완충시켜 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이혼과 같은 생활상의 문제는 심리정서적인 고립과 함께 지지체계와 단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위기와 가족해체가 진행되면서 저소득 부자가족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부자가족의 절대 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며, 저학력, 기술부족 등으로 대부분 단순노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머물러 있다(B. V. Brown, 2000; J. Jung & E. Han, 2007).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취업율은 86.6%로 높은 수준이나,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수준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 353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아버지들은 자녀양육비, 생활비 지원이 증대되면서 경제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S. Kwon & S. Ok, 2005), 부자가족은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D. Bae & M. Chin, 2011).

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61.6%, 저소득 한부모가족 24.0%, 일반 한부모가족 9.7%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에 입소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으로 경제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한부모가족의 취업율은 78.8%로 나타났는데 21.2%가 미취업 상태로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취업한부모도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자가족 아버지 중에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주는 없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시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85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한국 평균 남자소득(299만4천원)보다 3배가 낮았다. 부자가

족(109만3천원)의 월 소득은 모자가족(84만3천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빈곤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영유아기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의 우울감은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발달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H. Chang, 2012). 저소득의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과다한 역할과중까지 더해져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증 등을 갖고 있으며(J. Rho, 2010), 미래 삶에 대해 비판적이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양육을 지원해 줄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의 취약계층 중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E. Moon, 2011).

부자가족 아버지는 자녀양육과 생계부양의 역할양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시설 한부모가족이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서 문제점을 갖는 비율은 93.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문제점으로 자녀양육 부담이 38.1%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의 한부모는 저임금, 최저 수준의 생계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양육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고 생활에 지쳐서 자녀양육에 무관심하게 된다(J. Han & K. Park, 2008). 한부모가족의 미취학 자녀 10.4%(2.8시간),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의 각각 52.7%(3.7시간)와 56.2%(3.6시간)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빈곤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동반될 때 아동발달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 D. Conger, G. H. Elder, F. O. Lorenz, R. L. Simons, & L. B. Whitbeck, 1992). 자녀양육 부담에 있어 부자가족이 모자가족 보다 약 2배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육과 교육을 겸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S. Lee, 2007). 부자가족 아버지는 자녀양육행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역할수행에 있어 낮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H. Song & D. Jung, 2014). O. Kim and W. Lee(200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 보다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높은 양육부담감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을 수행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기도 하며(P. R. Amato, 2000), 이러한 역할책임의 변화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과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L. C. Hill & J. M. Hilton, 1999). 부자가족의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는 부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S. Jeong,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모자가족이 981건(14.4%), 부자가족이 1,360건(20.0%)으로 부자가족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4). 부자가족 아버지의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 역할부담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어져 아동학대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부자가족은 불가피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어려움, 심리사회적 문제,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단절 등의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는 가족구조로 설명된다. 부자가족이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부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낙인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발견한 부자가족의 특성은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부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양상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자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가족이 하나의 온전한 가족으로서 정상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자원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와 정책 마련을 위해 부자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자가족의 적응과정 중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의 경험들을 면밀히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방법 중 문화기술지(ethnographic)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중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첫째,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문화공유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집단이 공유문화를 형성하는 일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들은 하나의 문화공유집단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생애주기, 사건, 문화적 주제와 같이 스며들어 있는 패턴들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둘째, 문화기술지는 외현화된 현상의 이면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신념체계가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지 가장 잘 발견해내기 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가족들은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문화를 형성한다. 부자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신념과 가치를 발견하고, 본질적인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생활세계인 부자가족보호시설에서 부자가족의 관점을 통해 삶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을 통해 그들의 삶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화기술지의 목표와 부합되기 때문이다(J. P. Spradley, 1979).

1.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족복지시설은 부자보호시설 1개소(인천), 부자공동생활가정 2개소(서울, 인천)로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현장은 부자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부자보호시설이다. 연구자가 부자가족복지시설 중에 부자보호시설을 연구현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적절한 연구참여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표본추출과 표본 수는 연구현장의 집단에 의존한다(M. Angrosino, 2007). 현재 부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세대는 각 8세대(부 8명, 자녀 13명), 5세대(부 5명, 자녀 5명)로 실질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연구참여자 수를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재 20세대(부 20명, 자녀 29명)의 부자가족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부자보호시설을 연구현장으로 결정하였다.

시설규모는 대지 1,019㎡, 연면적 1,389㎡(420평)으로 지상 4층 건물이다. 시설건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관은 사무실, 주거공간, 자녀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로 이루어져 있다. 본관 1층에는 사무실, 컴퓨터실, 방과후 교실, 공동식당이 있고, 2층에는 자녀들이 학습할 수 있는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다. 별관의 1층은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2층은 게스트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목적실은 프로그램운영 및 행사장소로 사용되며, 게스트룸은 부자가족의 친인척이 방문했을 때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부자보호시설은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거주공간과 공동이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부자보호시설에서 사적인 가족생활과 입주 가족들 간의 공동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자보호시설(아담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들의 연령은 30대가 4명, 40대가 12명, 50대가 4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17명, 여자 12명으로 대학생 자녀 6명(남자 5명, 여자 1명), 고등학생 자녀 5명(남자 2명, 여자 3명), 중학생 자녀 3명(남자 3명), 초등학생 자녀 13명(남자 6명, 여자 7명), 미취학 자녀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이다.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2013년도 현재 '아담채'에는 2007년도 설립시 입소한 1기의 부자가족들이 퇴소한 상태이며, 두 번째로 입소한 2기의 부자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2. 연구참여자

문화기술지 연구는 전체 문화집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J. W. Creswell, 2007) 연구참여자 선정시 특정문화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현재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 아버지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의 주요 준거기준은 부자보호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이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현장인 부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은 총 20세대이며, 아버지 20명과 자녀 29명으로 총 49명의 부자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자가족들 중에 본 연구의 주요 정보제공자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버지 13명이다. 연구참여자 아버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 1명, 40대 7명, 50대 5명으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중졸 1명, 고졸 10명, 대졸 1명, 대학원 졸이 1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 1명, 회사원 2명, 간호조무사 1명, 상가관리 1명, 택배 배송 2명, 대리운전 1명, 일용직 2명, 요리사 1명, 무직 2명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직업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양부모가족 기간은 1년부터 19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설에 입소하기 이전 부자가족으로 생활한 기간도 1년 9개월에서 9년까지로 폭넓게 나타났다. 시설생활 기간은 1년 미만 5명, 1년 이상 2년 미만 1명, 2년 이상 3년 미만 5명, 3년 이상이 2명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총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이다. 연구자는 시설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연구현장의 접근통제자(gatekeeper)인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현장 접근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할 것,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관찰할 것, 입소중인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될 것과 연구일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참여자인 부자가족에게 진행될 심층면접 질문을 공개하였으며, 면접질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접법과 참여관찰이다. 문화기술지 면접은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연구참

여자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어 유용한 문화기술지 자료 수집 방법이며(C. Marsshall & G. B. Rossman, 1995), 참여관찰은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해 깊이 들어가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의 연구방법이다(U. Flick, 2009). 심층면접은 참여자가 시간의 이전과 후로 여행하도록 하는 반면에,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여 환경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발견하게 한다(D. A. Erlandson, E. L. Harris, B. L. Skipper, & S. D. Allen, 1993).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으로 시설입소 경위, 시설생활 경험, 가족관계, 적응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다.

자료수집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참여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노력을 기울였다. 시설장이 일차적으로 아버지들에게 시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 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무국장이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사무국장을 통해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아버지들이며 연구자는 심층면접 전에 연구참여에 관한 자발적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버지들 대부분은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이며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해 질문하였고 정보제공자들의 문화기술지 연구목적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개요와 목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심층면접 전에 연구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민감한 면접내용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할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면접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경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면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참여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면접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일예배, 풍물놀이 프로그램, 'Home Coming Day' 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공동식사나 여가시간과 같이 비공식적인 일상을 함께하며,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연구자는 현장에 머무는 동안 상황에 따라 관찰자로서 유연하게 다양한 입장을 취하였다. 소극적 참여자의 태도로 관찰자 역할만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관찰과 적절한 참여를 동시에 취하기도 했다. 부자가족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연구자로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수시로 질문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메모하였으며 현장을 떠나면 즉시 참여관찰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에 대한 생생함을 기록으로 남겼다.

본 연구는 부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와 부자가족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가 혼합되어 있는 특성으로 분석방법으로 의미범주화를 통한 주제도출과 발전식(D.R.S) 연구단계를 활용하였다. Spradley의 발전식 연구단계(D.R.S)는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광범위한 초점으로 시작하다가 몇 가지 선택된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로 좁혀지기 시작하는데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머지 단계와 동시에 수행되기도 한다(J. P. Spradley, 1979). 본 연구과정에서는 자료수집 초기에는 주로 서술적 질문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중요한 상황이 포착되면 질문이나 관찰범위를 초점화시켜 이를 분석하고 질문내용을 보완했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영역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이루어 나갔다. 이처럼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범위의 구조적 여러 단계가 동시에 수행되기도 하였으며 단일 단계의 수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Ⅳ. 연구결과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해 13명과의 심층면접과 현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관찰을 통해 주제를 도출했다. 연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찾기: "시설은 동아줄"

본 연구결과 부자가족의 시설입소 사건에 대한 핵심주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찾기: "시설은 동아줄"로 도출되었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에게 시설입소는 부자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 시설입소에 대한 복합적 심경

참여자 아버지들은 부자가족 형성 후 또 다른 가족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직면한 가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발견은 반가운 소식이고 희망으로 수용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시설정보 획득을 무조건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시설정보를 접한 후 얼마 동안 입소 여부를 갈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시설에 대한 편견

참여자 아버지들은 시설은 문제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

Table 1. The Adaptation Process of Single-Father Families in the Welfare Facility

Time	Theme	Clusters	Sub theme
Entrance to the facility	1. Finding a way to overcome the crisis: "the facility is lifeline"	1) A complex state of mind about entering a facility	(1) Bias about facilities (2) Expectations for successful parenting and economic independence
		2) The process of entering a facility	(1) Obtaining information on facility (2) Children's consent
Life in the facility	2. Uplifting the family: preparing for independence through living in the facility	1) Adapting to communal living	The rules of community life: It is uncomfortable, but a matter of course
		2) The beginning for a stable life as a single-father family	(1) Straightening out one's life and regaining stability (2) The start of independence: securing a stable job (3) The need for systemic parenting services (4) The facilities' names have ambivalent meanings (5) Beginning to have insights into their children
		3) Facility life type based on child development	Fathers of children during childhood: co-parenting informally
Leaving the facility	3. Incomplete preparation for departure	1) State of mind about leaving	(1) Anxiety about leaving the facility (2) Insufficient length of facility time living in a facility

로 소외되거나 비난받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입소 전 시설에 대한 비정상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하고 있었던 참여자들에게 부자가족복지시설로의 입소는 이중의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설입소는 참여자들 자신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었으며, 자녀들까지 시설생활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결국 참여자들은 현재의 가족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시설입소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럴 줄 알았어요. 신경질적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런 시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데다. 그런 게 있었죠. (#13)

(2) 성공적인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

참여자들이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소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양육책임감 때문이었다. 부자가족 형성 후 자녀에게 발생되는 양육공백과 제대로 된 양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방과 후 자녀에게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외로움, 학업부진, 비행과 같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걱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자녀의 돌봄 공백을 시설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관리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시설에 있으면 내가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 둘이 살면 애 이제 밥을 해 주어야 하는데 끼니 걱정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내가 요리사지만 00이 같은 경우는 아직 크지가 않으니까 일일이 챙겨 주어야 되요. 그런 게 제일 어려웠죠. 여기 들어오면 그런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겨서 밥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면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오면 내가 없더라도 밥 먹는 다른 사람들이 00이 가면 밥 퍼서 주고 챙겨줄 수도 있으니까. (#4)

아이 때문에 들어왔죠. 나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좀 잘 돼있어서 방과 후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될 줄 알았죠. (#11)

2) 시설입소 과정

시설입소 과정은 의사결정 단계와 공식적인 행정적 절차과정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시설환경과 분위기 등을 면밀히 탐색하였으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시설에 대한 정보획득 및 탐색

참여자들이 시설정보를 접했던 경로는 주민센터, 지인의 소개, 시설 홍보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한 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이렇게 등록도 안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들 둘 데리고 있으면 한부모 가족이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시냐, 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계양구 효성동에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 검토해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했죠. (#10)

한편, 참여자들 중 주민센터를 통해 시설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있었는데 주민센터의 행정과정에서 시설입소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우연치 않게 시설정보를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참여자들 대부분은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 때 당시 성당에서나 복지관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이 가까운 데에 있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된건데, 와가지고 면담을 해봤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혜택이나 도움을 받고 싶어 왔는데 가능한가?요라고 여쭤보니까 충분히 되고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6)

참여자들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여러 방법으로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시설을 탐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미리 탐색해 보고 시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했던 것이다. 특히, 시설이 적절한 자녀양육 환경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시설입소 과정이었다. 자녀양육을 위해 시설입소를 결정했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도 시설생활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었다. 시설입소 이전의 시설탐색 차원은 물리적 환경을 살핀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 자신과 자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이 안되더라구요. 도저히 방법은 없다고 해서. 주거문제가 제일 급하니까 아담채를 들어오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죠. 처음에 듣고 물어 보니까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다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처음에 아담채에 직접 찾아 와서 살펴봤어요. 3번인가 제가 직접 와서 봤지요. (#3)

여기 들어올 때 제가 기존에 여기 사셨던 분, 그 때 당시 한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여기 시스템이라던가 생활방식, 어떤 구도로 돌아가는가? 그런것 좀 대충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몇 번, 한두 번 만났어요.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돼있나. 그런걸 알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그 때 제가 주저하고 망설인 게 과연 그 때 당시에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 큰 애가. 그 다음에 딸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한참 예민하고 민감할 때인데 그런 환경, 분위기 속에서 적응해낼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구요. (#6)

(2) 자녀의 동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참여자 아버지들은 시설입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족문제에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시설입소는 자녀에게도 전학이나 이사로 인해 생활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물리적 환경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시설생활로 낙인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참여자들 대부분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할 것을 우려했지만 자녀들 대부분은 큰 거부감 없이 시설입소에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시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반면 자녀들은 시설에 대해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형성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기 자녀들은 열악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시설생활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아이는 받아드리더라구요. 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아이가. 그러자 아빠 가자. 전혀 시설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더라구요. 나는 오히려 아이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한번 떠보고 안가겠다고,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7)

애들하고 먼저 얘기를 했죠. 둘 다 싫다고 했어요. 근데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경제적으

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가자, 하니까 나중엔 둘 다 괜찮다고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진 않았어요. (#13)

2. 가족세우기: 시설 생활을 통한 자립준비

본 연구결과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시설생활에 대한 주제는 '가족세우기: 부자가족복지시설 생활을 통한 자립준비'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 시설은 특별히 의미 있는 곳으로 개념화되고 있었다. 시설은 부자가족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생활은 부자가족 아버지들에게 다시 가족을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으며,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1) 공동체 생활에 적응

현재 시설에는 20가구의 부자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주거공간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받는 일은 발생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소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서로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시설규칙이 있었는데 입소과정에서 시설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규칙준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입소하게 된다. 시설의 주요규칙은 폭언 및 폭력사용 금지, 장기외박 규정, 외부인 무단출입 불가, 공동생활 장소에서의 음주 및 흡연 금지이다. 시설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은 생활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으로 3번 이상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퇴소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설규칙을 다소 불편하지만 공동생활을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시설규칙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시설규칙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시설규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규칙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들어올 때, 서약을 해요. 뭐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20명이 있으면 함께 살면서 다 지켜야 할 것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지켜야 되는 것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시설이니까. (#1)

근데 어차피 공동생활이니까 그 정도는 따라주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 입주자들이 자격이 돼서 왔다고 하지만 위에 선생님들 말을 따라주어야 당연한 거고. (#10)

2) 부자가족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시작

시설생활로 인한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삶의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 모두 양부모가족 갈등시기를 시작으로 부가가족 형성 후 지속되는 좌절과 어려움으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해야만 했었다. 시설생활은 참여자들에게 지속되어 왔던 여러 어려움들을 완화시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었다.

(1) 절망적인 삶을 추스리고 안정을 찾음

본 연구에 참여한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부자가족 형성 후 부족한 경제적 자원과 자녀양육의 한계상황에서 절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시설생활을 심적 부담감을 갖고 시작한다. 시설생활은 위기로 계속 치닫기만 했던 부자가족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삶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설에 입소하기 이전 참여자 아버지들은 일과 자녀양육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역할수행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심리적 고충은 더욱 가중되었었다. 하지만 시설생활로 자녀양육 부담이 완화되면서 심리적 중압감은 책임감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참여자 아버지들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며, 시설을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해야 했던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여가시간 활용도 가능해졌으며, 밖에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설의 자녀 보호기능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애가 오면 주위에 애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죠.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주말이 돌아오면 무서운 거예요. 애를 친척들한테도 거절당했는데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어서.. 식당 주인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출근하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번이지 싫어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설이 동아줄이죠. (#4)

시설은 저한테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고 애들 신경 안 쓰게 해주니까 저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날을 새고 들어오거든. 화물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거든. 시설에 있으면서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벌써 애들 맡겨놓고 일한다는 자체가 제가 시설에 안 들어왔을 때 애들 밥 해줘야 하는데 밥해주면 제가 밖에 나가서 날을 새지를 못하잖아요. 날마다 애들이 밥해먹겠어요. 애들 밥 할지도 모르는데. (#10)

한편, 모든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공동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각 가정에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버지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욕구를 반영하여 식당운영을 하게 되었다(사무국장)”라고 하였다.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제대로 갖추어진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쉽지 않은 과업으로 식사준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자녀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안함도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식사준비를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가사 일이라고 토로하였는데 시설에서의 식사제공으로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되었다라고 토로하였다.

일단 의식주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거고. 또 저축도 저쪽에 있을 때는 전혀 못했는데 여기오니까 저축도 조금 하게 되고. 애들은.. 애들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 거기 있을 때 보다 안정감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식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그 때 되면 애들 식사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 같으면 내가 안 들어오면 못 먹잖아요. (#13)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적지 않은 생활비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었으나 시설에서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과 같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완화되고 있었다. 시설입소 전에 대부분 참여자들은 주거비용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몇 달씩 밀리기도 했으며, 보증금이 바닥이나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었다.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불안정한 주거문제는 심적 불안감을 유발시켰었으나 시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주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식처가 있다는 심리적 동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이죠. 일단 내가 외부에 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든, 월세든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단은 내 안정적인 거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근심걱정 안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6)

이런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 저도 밖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다 보니까. 주거비가 안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 월세가 작년까지 35만원이 나갔거든요. 주거비가 안 들어가면서 주거지가 확정이 된다는 것과 식사가 해결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거의 좌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수적인 게 보호막이 되는거죠. (#14)

본 연구결과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완화되거나 해결된 문제들은 자녀보호, 식사제공, 경제적 비용 절감, 안정적인 주거제공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시설에서 안정을 찾아 가고 있었던 주요 배경은 시설입소 전에 겪어왔던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되거나 해소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해체 후 시설에 입소하기 이전까지 참여자 아버지들 대부분이 제대로 도움 받을 지지체계는 불안정하였다. 부자가족으로서 겪었던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신뢰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참여자들에게 안정된 공적 지지체계는 정서적으로도 많은 의지가 되고 있었으며,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 받을 곳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는 것을 좀 불신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안심이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죠. (#1)

삶의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되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만 매달리면 되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내 집이 있고, 보호해 줄 곳이 있고, 먹을 데가 있고, 잘 데가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이 돼요. (#6)

(2) 자립을 위한 시작: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자립을 고려할 수 없었다. 부자가족 형

성 후 대부분의 참여자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설에서 참여자들은 부자가족으로서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다. 참여자들은 시설생활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특히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와 의지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립성취를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기 와서는 애가 얼마나 발랄한지 나도 식사에 대한 부담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책도 더 읽어지고. 월요일은 강의 듣고 요즘엔 매일 부평에 있는 학원에 가서 컴퓨터 엑셀하고, 경비 지도사 강의 들어야지 그거 또 안 들으면 안 돼. 정신없이 지내면서 뭔가 준비가 되면 제 빛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죠. (#2)

지금도 학원 등록하고 다른 자격증은 많은데 중장비나 그런 게 없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고 그냥 와서 도전한다는 게 나이가 많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8)

참여자 아버지들은 시설생활 기간을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자립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를 시설퇴소 시점으로 정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의 부담감 감소로 자립준비가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세워서 여기 3년, 이용을 잘해서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죠. 큰돈을 모아서 나가지는 못 하겠지만 내 자신의 발전에 계기가 됐다고 봐요 여기서는. (#9)

열심히 벌어서 자립해서 나가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자립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12)

(3) 자녀양육에 관한 체계적인 서비스 욕구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주요배경은 자녀에게 더 나은 물리적 환경과 양질의 양육을 제공해 주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아버지들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시설의 적극적인 기능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시설입소 시 자녀에게 제공되는 돌봄이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양육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과정에 맞는 돌봄이나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욕구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좀 잘돼 있어서 방과 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될 줄 알았죠.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방치상태죠. 그 부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웠죠. 아이 때문에 좀 교육 좀 시키고 프로그램 좀.. 그게 거의 안됐다고 봐야죠. (#11)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든 어린이집을 갔다 오든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버지를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만 있는데 좀 챙겨주고 시간되면 공부시키고 몇 시까지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여기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4)

2013년 8월 24일 (참여관찰일지 일부분)

연구자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5세)이가 사무실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직원에게 아동에 대해 묻자 “열이 나고 아파서 사무실에 있다”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이 끝나고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이는 어디에 있냐고 묻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일을 하다 중간에 들어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하였다.

좀 신경도 써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쉬잖아요. 당번, 당직만 남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비워놓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겠지마는. 같이 병원에 잠깐 데리고 갔다 올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12)

(4) 시설에 대한 양가적 의미

참여자들에게 “아버님에게 시설은 어떤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쉼터, 충전, 안식처”라고 표현 하였는데 시설입소 전 아버지들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냈던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건을 “행운, 오아시스, 동아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시설은 부자가족 아버지로서 힘든 역경을 이기고 다시 가족을 세울 수 있게 한 의미 있

는 곳이었다.

충전이죠 충전. 내가 밖에 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나마 조금 내 나름대로 휴식도 갖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거 할 때 생각도 해보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좀 많다는 거죠. 시설 자체가. 나는 여기 살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한테는 내가 애들 데리고 살면서 제일 힘들 때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참 고마운 곳이죠. (#5)

하지만 시설생활 이력이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시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시설생활을 드러내지 못하고 심리적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에게 시설은 부자가족 적응과정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꼭 머물러야 했던 중요한 곳이며,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흔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설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자들 모두에게 시설은 분명히 고마운 곳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과정 중 지우고 싶은 '불편한 흔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복지하면 뭔가 열악하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인식이 그렇죠. 그런 게 팽배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여기 주위 나가보면 여기 아담채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부터가 그래. 정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불쌍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시선으로 봐요. (#6)

애가 더 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는 거.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는 작용이 안 되잖아요. 저도 되게 수치스럽죠. 고마운데 스스로가 이제 좀 그렇죠. 저 스스로도 부정적이고 외부 시선도 당연히 그렇죠. (#11)

(5) 자녀에 대한 통찰을 갖기 시작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시설생활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자녀의 가족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가족관계에서도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었으며, 참여자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통찰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입소 전 자포자기할 정도의 힘든 환경에서 자녀에 대한 이해 보다 미숙한 대처로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참여자 아버지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미흡한 양육기술을 탐색해 보기도 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반성적 회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지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뭐 하지마라, 뭐 하지마라. 예를 들어서 뛰어다니지 마라, 인사 잘해라, 밥 먹을 때 자세 똑바로 하고 밥 먹어라 그런거죠. 샤워해라, 이빨 닦아라! 이런 거.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지마라, 하지마라.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걸 좀 안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자꾸 윽박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놔둬요. 자기가 알아서 하게. (#11)

부자가족 형성 초기에는 양육자의 권위를 이용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훈육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자녀의 행동변화를 시간을 갖고 지켜보기도 하고,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경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양육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적절한 양육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성공적인 자녀양육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았지만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거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은 세심한 정서적 돌봄을 어려워하거나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훈육방법을 몰라 미숙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훈육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책감을 느끼고 있어 미흡한 양육기술은 아버지로서 양육효능감을 떨어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네들 둘이 놀고 뭐하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둘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서로 막 잘못 했다고 하면 이걸 둘이 혼내야 되나, 내가 모르는 척해야 되나. 그런 걸 잘 모르죠. (#5)

3) 자녀의 발달에 따른 시설생활 유형

본 연구에서는 부자가족들이 시설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삶을 이루어 가는지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아버지들의 시설생활 유형이 나누어지고 있었다. 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들 간에 비공식적 공동양육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공동양육을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잦은 교류와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과 특별한 교류나 친분을 유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설생활 유형을 보였다.

아동기 자녀의 아버지: 비공식적 공동양육 형성

공동양육은 시설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함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시설에서 함께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설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양육은 '양육부담감 감소', '자녀의 사회성 발달', '아버지들과 지지적 관계 형성'과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양육의존'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발견되었다. 또래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를 돌볼 때 다른 가정의 자녀도 함께 챙겨 주거나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할 때는 대신 자녀를 돌보아 주기도 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자녀를 챙겨주는 것 이외에도 가족단위의 여가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일 오전에는 시설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오후에는 친하게 지내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이나 공원으로 가족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참여자(#5)는 처음에는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나들이를 가는 것이 눈치가 보여 다함께 가자고 제의를 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 간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보여준다.

여기만 들어오면 제일 걱정이 안돼요. 여기 오면 자기네들끼리 놀고, 밥 먹고, 제가 오면 한 7시 되거든요. 제가 퇴근하면 놀고 있어요. 저희 집은 혼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있으면 밥 먹고 데리러 가죠. (#1)

나는 여기 살면서 일요일 날만 되면 교회 갔다가 와서 우리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오는데, 우리 애들만 데리고 다니기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요일 날만 되면 당연히 애들이 같이 놀러가는 줄 알죠. (#5)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시설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연구자는 자녀들의 귀가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는데 참여자(#5)는 방과 후 매일 자녀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고 있었다. 이때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귀가하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함께 챙겨주고 있었다. 또한,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는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나 시설에서는 공동양육의 도움으로 친한 아버지에게 아픈 자녀를 대신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자녀돌봄을 부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제 아파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서. 밥도 못 먹고 열이 많은데 해열제 찾아봐도 없다고 해서 동생(참여자 #4)이 집에 있는데 해열제 좀 찾아 먹이고 병원 좀 데리고 갔다 와라 했어요. (#12)

한편, 공동양육 수행은 자녀들에게 친밀한 또래 관계를 형성시키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양육을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시설생활로 인해 자녀에게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로 성격이 활발해지고 밝아졌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온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거죠. 여기 오면서 애들이라도 있고 같이 어울리고 애가 여기 와서 활발해지더라구요. (#4)

많이 활발해진 거.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진 않았어요. 그게 엄마랑 헤어진지 얼마 안돼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학교 끝나면 내가 조금 늦으면 전화가 와요. "아빠 어디야? 어디 있어요?", "응 아빠 지금 가는 중이야.", "학원가야지" 그러면, "아빠 오늘 학원 안 갈게요.",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돼요?" "아 그래." 내 차에 태우고 같이 돌아다녀요. 그게 제일 여기 와서 좀 많이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성격이 바뀌더라구요. (#8)

참여자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비공식적 공동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하려는 노력은 시설 안에서의 비공식적 공동양육을 바탕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습득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친하게 지내는 아버지들과 외부에서 실시

하는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있었다.

주마다 한 번씩 해요. 여기서 같이 가자 그래서, 다 애들이 고만고만하니까. 좋더라구요. 한 두 시간 들었나. 매주 한다고 했나. 문자가 떠요. 아이 눈높이 대화법 그러면 갈 사람들 모여서 가요. 관심이 많죠. 두 역할을 해야 하니까. (#4)

내가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요. 내가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키우는 것보다 같이 가서 교육을 받던가, 부모교육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다니죠.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5)

이혼과 자녀양육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었던 부자가족 아버지들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아버지들과의 상호작용은 의미 있는 관계형성이었다. 자녀들의 교류로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양육을 의지하면서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지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과의 친밀감 형성은 아버지들의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부자가족 아버지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동병상련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기도 하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밖에서 세 식구 사는 것보다 같은 형편의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면서 내 자식도 보고 남의 자식도 보고 그러고 하면. 그래도 나한테는 밖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좀 마음의 안식처가 더 낫죠. (#5)

3. 미완의 퇴소준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대부분의 부자가족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간에 시설을 퇴소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고 있어 3년 후에 대부분의 퇴소가 이루어진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에게 시설생활은 가족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이 시설의 공적 보호체계를 일정기간 후에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시설퇴소에 대한 심경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모두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성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든 퇴소시점까지 취약했던 경제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 아버지들은 퇴소준비 상황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의지만큼 되지 않는 자립준비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설퇴소는 그 동안 시설에서 받았던 여러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자가족 아버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시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퇴소가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들에게서 불안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1) 시설퇴소에 대한 불안함

아동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퇴소 후 자녀보호체계의 상실과 자녀돌봄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양육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규적인 직장생활은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교적 근로시간이 유연한 직종을 찾고 있었다. 아동기 자녀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국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불안정안 일자리를 다시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참여자(#4)는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다.

벌어서 나가야죠. 나가도 걱정이에요. 애가 커야 하는데 나가면 애가 이제 7살인데 8살 이제 학교 들어갈 것이고 혼자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직업을 바꾸려고 해요. 운전직이나 주말에 쉴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려고 해요. 애가 어리다 보니까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다 학교를 안가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같이 좀 놀아주고 봐주고 하려고요. 엄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거라도 잘 해줘야죠. (#4)

여기는 돌봐 줄 사람이 있는데 나가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여기 나갈 때는 5학년 그 때니까. 5학년, 4학년이 되니까. 퇴소하고 나면 일단 의식주가 제일 힘들 거 같아요. 그리고 위험한 거. 지금은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그게 제일 힘들 거 같아요. (#8)

대부분의 참여자 아버지들은 시설입소 시점부터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을 모두 확보하고 퇴소하는 아버지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었다.

(2) 부족한 시설거주 기간

시설 거주기간 동안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퇴소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참여자들은 시설거주 자격인 저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입소유지를 위한 소득인정액 조건은 부자가족을 저소득층에 머무르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이 있으면 걸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해서 비정규직화 시키고 그랬죠. 조사하는데 시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두 번 걸려서 수정도하고 급여자체를 서류상으로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죠. 안 겹치게. 지금은 소득신고를 안하니까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아무래도 입소가 한 달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급여가 넘으면 퇴소조치가 되니까. 입소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비정규직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없는 사람들인데 뭐 생활하다보면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선택을 해야 하는거죠.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이 걸리죠. 입소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 항상 신고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죠. 급여 신고가 안 들어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죠. 어려운데 또 어쩔 수 없죠. 그게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11)

한편, 시설거주 기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거주 연장 조건은 궁극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과 후 자녀돌봄 문제와 거주지 확보와 같은 퇴소준비가 진행 중이었던 참여자(#1)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을 하였다. 1차 신청은 받아들여져 4년 동안 시설에서 거주하였으나 두 번째 연장 신청을 하였을 때는 수용되지 않아 퇴소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1년씩 두 번 연장이 되요. 부모가 대학을 다니거나 나갈 쯤에서 다쳐서 3개월 이상 입원을 한다든지, 저는 방통대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방통대 재학 증명서를 재출했어요. 한번은 됐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승인이 안됐어요. 승인이 안돼서 제가 10월 6일 퇴소를 해요. 만 4년 살았거든요. 10월에.. 3개월 남았어요. 3년이면 적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이나 7년 길게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많이 했어요. 건의 했는데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제 시각엔 한 5년이나 7년 정도 하면 아이들도 좀 크고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요.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서 더 돈독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죠. (#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자가족이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배경 및 시설생활을 탐색하므로 부자가족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이혼 후 자녀를 떠나지 않고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나 부모로서의 높은 양육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양육을 수행하는 부모로서 강점이 될 수 있다.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스스로 양육방법을 터득하거나 더 나은 방안들을 모색하며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해 나간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양육 수행 과정에서 처음에는 엄격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민주적 양육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긍정적인 양육변화 과정을 보인다고 강조한다(R. M. Smith & C. W. Smith, 1981; W. J. Santrock & R. A. Warshak, 1979).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일련의 양육기술 습득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녀는 이미 부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은 상태이다. 아버지들도 부적절한 양육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는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특별히 자녀양육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H. Lee & S. Jung, 2014). 아버지들이 쉽게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자녀들은 양질의 양육을 제공받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한부모가족 형성 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 변화는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다(J. S. Wallerstein & S. Blakeslee, 1989). 본 연구에 참여한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한부모가족 형성 후 경제적으로 더 열악해졌는데 부족한 물적자원은 양육수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본 연구참여자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저소득층 이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자녀양육 책임이 강하거나 적극적일 때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지는 인과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저소득층인 경우 아버지로서 정체성에 있어 도전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R. Forste, J. P. Bartkowski, & R. A. Jackson, 2009). 특히, 발달단계가 영유아기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아버지가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으로 파트타임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일을 아예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자녀가 성장해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져 있거나 경력단절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자녀양육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녀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기 자녀에게는 야간시간이나 24시간 돌봄이 제공되어야 하고, 아동기 자녀들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학교의 돌봄 교실을 이용한다 해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는 일상생활 관리 및 숙제와 학습지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를 보살펴 줄 돌봄지원이 상시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들은 적응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고 힘겨웠던 부자가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자가족복지시설이 가족안정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설은 아버지들에게 자녀양육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전환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생활로 이룬 가족안정은 자립동기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다른 아버지들과의 양육협력으로 자녀에게 더 나은 아버지역할 수행에 집중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취약한 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는 가족안정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아버지들의 정서적 회복요인은 시설의 물리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같은 처지의 아버지들과의 교류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의 공적지지체계 안에서 개인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혼으로 지지체계가 축소되거나 단절된 한부모가족 아버지들은 다시 심리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시설 안에서 아버지들 간의 친밀한 교류는 자녀들의 복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시간부족, 열악한 경제적 여건, 높은 스트레스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지 못했던 더 나은 자녀양육 역할수행은 시설생활 안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함께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동양육을 수행하고 있어 자녀를 혼자 키우며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양육공백은 양육자로서 가장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으나 비공식적 공동육아를 형성하여 다른 가정의 자녀가 혼자 있게 되면 서로 보살펴주고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들 간의 형성된 유대관계는 개인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형성하여 심리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녀에게는 더 나은 양육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자조모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자조모임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고립을 극복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한 아버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지지관계 형성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내적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안정이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 나가 독립적인 부자가족으로서의 삶을 이룰 때까지 보장되고 있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참여자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의 부담감 완화로 일에 더 집중하거나 안정적인 직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취업준비나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으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다시 회복하고 완전한 자립준비를 이루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를 데리고 퇴소한 경우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수행의 딜레마는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퇴소시점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설에서 이룬 가족안정은 일시적, 단기적 차원에 그치게 된다. 시설퇴소 시 부자가족이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개입이 퇴소시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부자가족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의 가족형태로 온전히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가족복지시설의 운영 측면에 관한 정책적 제언으로 실효성 있는 시설입소 유지 조건과 연장 사유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부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조건은 저소득(최저생계비 130%, 2인 가족 기준 138만원 미만)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입소 요건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기도 한다.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경제적 상황이었던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빚을 갚고 퇴소 후 자녀와 생활할 수 있는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단지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유로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퇴소

시 주거마련, 자녀양육, 자립준비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이고 다면적인 평가와 심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자가족은 내적인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자가족을 바라보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사회적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적응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이는 부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 연구에서 부자가족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 비해 더 많은 편견과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Y. Jang, J. Kim, & H. Kim, 2014). 부자가족 아버지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집단화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자가족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하였을 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부자가족에 대한 대내외적인 편견,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부자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들은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양육역할을 더 적극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자녀양육 수행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가 없는 가정의 아이다"와 같이 결손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적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엄격하게 자녀를 훈육하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가족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전환이 재고되어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구조나 형태와 같은 외형적 요인이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제공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상담이나 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시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족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함을 강조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가족역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심층적 고찰을 이룬 최초의 문화기술지연구다. 부자가족의 시설생활을 면밀히 보고함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자가족복지시설의 실제적인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시설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자가족의 복지와 부자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적응기간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응기간과 참여자 특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부자가족들의 적응 경험을 제시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경험에 대한 통합분석을 이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REFERENCES

Amato, P. R. (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2*(4), 1269-1287.

Anderson, S. A. (1988). Parental stress and coping during the leaving home transition. *Family Relations, 37*(2), 160-165.

Angrosino, M. (2007). *Doing ethnographic and observational research.* London: Sage.

Bae, D., & Chin, M. (2011).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single and single-father families and their household composition. *Journal of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5), 121-140.

Beal, W., & Edward, M. D. (1980). *Separation divorce, and single-parent familie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Berman, W. H., & Turk, D. C. (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Brown, B. V. (2000). The single-father family.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03-220.

Bursik, K. (1991). Correlates of women's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Journal of Divorce, 1*(15), 137-162.

Chang, H. (2012). Parenting attitude,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of infant and young children in poor single-parent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3), 67-97.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influences on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3), 526-541.

Creswell, J. W. (2007). *Second edition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 CA: Sage.

Erlandson, D. A., Harris, E. L., Skipper, B. L., & Allen, S. D. (1993). *Doing naturalistic inquiry: A guide to methods.* Y. M. Yu., S. H. Kim., E. Y. Iee., S. Y. Son.,

J. H. Han., S. O. Hwang. Translated (2006).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 실천하기. Seoul: Kyungmoon.

Flick, U. (200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Forste, R., Bartkowski, J. P., & Jackson, R. A. (2009). Just be there for them: perceptions of fathering among single, low-income me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7*(1), 49-69.

Han, J., & Park, K. (2008). Protective factors of school-aged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from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8), 1-15.

Hill, L. C., & Hilton, J. M. (1999). Change in roles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1(3/4), 91-114.

Hwang, E. (2007). Comparison of conflicts in single mother families and single father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Single Parent Family Institute, 2*(1), 1-20.

Jang, Y., Kim, J., & Kim, H. (2014). A case study on operating social facility for single-father families in Korea: Base on facility worker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 19*(3), 147-174.

Jeong, S. (2006). Family structure,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dolescent delinquen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single mother family and single father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0,* 185-213.

Jung, J., & Han, E. (200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low-income divorced family's children on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491-504.

Kim, O., & Lee, W. (2001). Parent's divorce and children's peer-attachment, *Journal of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3), 31-40.

Kits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13-92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A study on support system of self-reliance for vulnerable single-parent families.*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83000-000196-01). Seoul, Korea: Kim, S., Kim, Y., Pak., J., Kim, Y., & Choi, 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A gender-sensitive analysis on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Seoul, Korea: Kim, A., Han, J., & Kim, Y.

Kwon, S., & Ok, S. (2005). Predictors of post-divorce adjustment - among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3), 199-219.

Lee, H., & Jung, S. (2014). The reconstruction of the change of the parenting process in the life course of adolescents from single father families. *Family & Culture, 26*(2), 10-37.

Lee, S. (2007).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y of father-rearing-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Marshall, C., & Rossman, G. B. (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Los Angeles: Sag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2012 National survey on single-parent families.*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83000-000251-10).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4). *2013 Child abuse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korea1391.org.

Moon, E. (2011).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single-dad-families in Seoul based on a fact finding research.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Society, 1*(2), 135-174.

Ohem, M., & Chun, D. (2006). A study on caregiving burdens and social support about the low-income families of single parents. Social Welfare Review, 11, 75-108.

Rho, J. (2010). *Study on the process of self-reliance in a divorced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Santrock, J. W., & Warshak, R. A. (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12-125.

Smith, R. M., & Smith, C. W. (1981). Child rearing and single-parent father. *Journal of Family Relations, 30*(3), 411-417.

Song, D., Sung, J., & Han, J. (2003) A study of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children from one-parent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2,* 273-299.

Song, H., & Jung, D. (2014). The difference of father's role playing,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child's self-regulation between father-children family disorganized by divorce and normal famil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8*(2), 35-58.

Spradel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J. H. Park. Translated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Seoul: Sigmapress.

Wallerstein, J. S.,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hnor & Fields.

□ Received: July 13. 2015
□ Revised: September 13. 2015
□ Accepted: September 20. 2015